"곤충산업 전북 농촌의 새로운 먹거리로"

생진원, 반려동물 보유가구 급증에 따라… 곤충 활용한 사료 개발 기획 산업화 실천키로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는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의 향상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증가로 관련 산업도 2012년 9천억 원 규모에서 2020년 5조 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려동물들도 8세 이상 노령견 비율이 2006년 13%에서 2016년 현재 약 30%까지 증가하는 등 반려동물의 나이도 점차 노령기에 접어들면서 아토피, 관절 및 안과 질환 등과 실내생활에 따른 당뇨, 비만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성 사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용품 시장 중 53%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시장의 경우 외국계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 로얄캐닌, 힐스, 네추럴발란스, 마스, 등의 수입제품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한사료(주), 대주산업 등을 위주로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을 출시하고 있으나 어획량 감소 또는 구제역,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동물성 원료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곤충은 양잠 및 양봉에서 해충방제, 체험학습, 화분매개, 환경정화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업적 가치가 재발견 되어 사육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사료 및 식의약용 곤충의 수요처발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인 곤충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생진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술의 시장성 및 경제성 등 기술가치평가와 사업전략이 우수한 과제를 지원하는 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생진원은 가축전염병에 안전해 질병과 검역에 문제가 없고, 최근 영양학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이 발견되고 있는 곤충을 활용해 반려동물 사료 및 기능성 첨가물을 개발하기 위해 공모과제를 기획하게 됐다. 이번 과제에 생진원과 대한사료(주)는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3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어분 및 육분 등의 동물성 단백질 원료가 곤충유래 단백질원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견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고급화 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시장에 고품질 기능성 제품으로 산업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김동수 원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반려동물 애호가 들이 급증하면서 2,740만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고, 관련 펫푸드 시장도 2020년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는 곤충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수요처로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안재용 기자

유창수 군산농협 조합장, 이달의 우수조합장 선정

전북농협은 8일 '이달의 우수조합장'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과 쌀 판매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유창수 군산 회현농협 조합장을 선정·시상 했다.

유 조합장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 153개소를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유일 4년 연속 경영우수 평가를 받았다.

농협중앙회가 RPC경영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는 농가벼 수매, 수탁, 판매, 손익, 고품질 쌀 생산 등을 평가하는데, 회현농협은 그동안 전국 타 RPC와 압도적인 차이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쌀값하락과 소비부진으로 대부분 RPC들이 경영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회현농협이 뛰어난 실적을 거둔 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고품질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된 '옥토진미골드' 덕분이다. 철저한 재배관리와 현대화 시설을 갖춘 RPC에서 생산한 '옥토진미'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밥맛 좋은 쌀로 정평을 얻어 전북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유 조합장은 시상식에서 "우수한 쌀을 생산하느라 수고한 조합원들과 묵묵히 땀 흘린 임직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9월 21일 개최

농관원, 우수사례 발굴 · 홍보… 이달 중 신청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GAP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GAP인증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3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경진대회는 다양한 GAP 실천 성공사례를 모델화·홍보해 농업인의 참여계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GAP를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 선발된 우수사례에 대한 서류 및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과 단체는 해당 시군에 6월중 신청해 지역심사와 추천으로 시·도별 우수사례 3건 내외를 추천 선정해 중앙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친다.

최종 선발된 10건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9월2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하게 된다.

올해 경진대회는 현장중심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심사기준 변경, 국민심사단 구성 등 심사절차를 내실화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농업 현장 실천사례 중심으로 심사배점을 강화해 농업인들이 GAP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국민심사단을 새롭게 편성해 심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소비자 체험 장소로 활용하는 등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 경진대회 입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부상을 시상할 계획이며, GAP농산물 기획판매전 우선 출품,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GAP농산물 생산·공급 제안서 제작을 통한 대형유통업체 판로확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500만원,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50만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한편 해당 농장을 농업인 및 소비자들의 현장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GAP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GAP우수사례 전용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입상자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GAP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이번 GAP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농업인의 GAP 참여를 확대해 GAP가 농산물 생산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GAP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신보, 에너지신산업 분야 지원에 박차

신용보증기금은 에너지신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정책금융기관 최초로 한국에너지공단 및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기업에 금융지원을 해 온 신보는 새 정부의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저장장치 금융지원 협약은행이 3곳으로 확대돼 에너지저장장치 투자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저장장치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저장장치 투자기업을 추천하면 신보는 보증료 및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협약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1.0%p 우대하는 한편 기업이 납부할 보증료 중 일부를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친환경·저탄소 미래 에너지 발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중소기업 성장동력 확충과 에너지 산업 효율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정승 농어촌공 사장, 전북지역 가뭄 극복 현장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정승사장은 전북본부를 방문해 전북지역 일대의 가뭄극복을 위한 대응 노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승 사장은 전북본부의 가뭄대책상황실을 방문해 도내 저수율을 토대로 용수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전국적으로 발생 가능한 가뭄 상황에 대비하여 전북지역본부의 선제적인 용수관리를 주문했다. 전북본부는 현재 이앙기 필요 저수량(1억3,234만㎥)보다 많은 3억2,233만㎥를 확보해 영농급수에는 지장이 없으나, 가뭄 심각·경계단계 저수지(10개소)는 양수저류, 직접급수 등을 통해 가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중진공, 청년창업자 · 재기중소기업 간 교류회 개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는 8일 창업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발판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기업 석세스 코칭 및 재기중소기업 간 교류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창업가의 사업 성공률 제고 및 맞춤형 코칭을 위한 전문가 강의와 청년 창업 기업의 열정과 재기 창업 기업의 축적된 노하우 및 경험 교류를 통해 창업 초기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 구글 본사의 사내 인기 교육 SIY(내면검색) 특강을 통해 지혜로의 청년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향상을 도모했다.

/안재용 기자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AI 거점소독시설 방문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8일 강태호 전북농협 본부장, 최용구 농협은행 본부장과 함께 익산시 용동면의 AI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소독용품을 전달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익산군산축협을 방문해 AI 방역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용환 회장은 "올해 농업인들은 가뭄, 우박피해,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범농협 차원에서 방역지원 및 현 상황극복에 농협금융지주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